

SK케미칼도 적대적 M&A 노출!

SK그룹 해체위기에 몰려 ... 부실 계열사는 동반퇴출 가능성

SK 채권단이 SK글로벌에 대해 청산형 법정관리를 신청기로 결정하면서 자산 47조원의 제계 3위인 SK그룹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몰리게 됐다.

물론 SK그룹이 막판에 채권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백기투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SK가 SK글로벌 살리기를 포기한다면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은 불가피해 보이며, 채권단은 SK글로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주주인 최태원 SK 회장이 담보로 내놓은 계열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게 돼 그룹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SK 계열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독립경영을 가속화하겠지만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의 향방에 따라 전 계열사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태원 회장은 그동안 5.2%의 지분으로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를 지배해왔고, SK는 SK텔레콤 19.8%, SK글로벌 37.9%, SKC 47.7% 등 주요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태원 회장은 SKC 7.5%, SK글로벌 3.31%, 위커히호텔 40%, SK C&C 44.5% 등 모두 4500억원대(2월 말 기준)의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 채권단이 주식을 처분하면 최태원 회장은 SK의 지배력을 잃게 되고 연쇄적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SK 계열사들은 오너가 사라지면 각자 독립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유류계 소비연자산운용이 14.99%의 지분으로 SK의 최대주주가 되어 있으나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 풍토상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SK, SK텔레콤, SK케미칼, SKC 등 각 계열사들은 독립 경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계열사가 손길승 회장의 주도 아래 그룹체제를 유지한다 해도 과거와는 다른 느슨한 연합체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SK그룹이 해체되고 각 계열사가 독립경영을 하게 되면 부실 계열사들도 동반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구조가 가장 취약한 SK 계열사는 비상장사인 SK해운과 SK건설 등이다. SK글로벌에 대한 백지어음 지원 등으로 2000억원대 손실을 입은 SK해운은 자본금 3285억원 중 2419억원이 잠식된 상태이다.

SK건설도 멕시코 석유화학공장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매출채권 2억5000만달러(약 3000억원)의 75%(약 2000여억원)를 부실로 평가받았다.

전문가들은 계열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실 계열사부터 도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계열사들도 그룹 해체에 따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경영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채권단이 SK글로벌 사태에 대한 그룹 책임을 이유로 각종 채권을 회수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SK케미칼, SKC 등 덩치가 작은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SK 또한 SK글로벌 투자손실 6500억원과 매출채권 1조원대 손실 등으로 상당한 자금부담을 안게 돼 채무구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SK글로벌에 위탁했던 주유소 영업망을 잃을 가능성도 커져 영업망 복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 1위의 지위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SK텔레콤은 그룹에 대한 지원부담에서 벗어나 탄탄한 기반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3/05/30>